

중국 웹소설 『귀취등(鬼吹燈)』 연구*

— 『정절고성(鬼吹燈之精絕古城)』 주 내용 요소의 장르 특성을 중심으로

유경철**

목 차

1. 들어가기
2. 『정절고성(精絕古城)』의 구성과 세 가지 주 내용 요소
3. 도굴과 도굴자의 세계
4. '이도공간(異度空間)'에서의 모험
5. 소문과 전설, 미지 사실의 실체 확인과 그 진상의 파악
6. 나가며

국문초록

중국의 첫 '도굴소설' 『귀취등』은 '모금교위 후바이 일행의 도굴 모험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의 전체 이야기는 '도굴과 도굴자의 세계', '이도공간에서의 모험', '소문과 전설, 미지 사실의 실체 확인과 그 진상의 파악'에 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 천하패창은 각종의 역사 기록, 도굴 및 풍수 관련 이론 등을 활용하고 이에 도굴자의 '도두' 활동과 풍수가의 풍수술 등을 결합하여 '도굴과 도굴자의 세계'를 상상해 냈다. 이것은 '도굴소설'이라는 새로운 하위 소설 장르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도공간에서의 모험'은 『귀취등』이 일종의 모험기라는 점에서 이야기의 본체에 해당한다. 이 모험은 '이도공간'으로의 진입, 괴생명체와의 대면, 초현실적이고 기이한 상황의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초현실적이고 기이한 상황의 경험 가운데, 특히 귀신 및 혼령 등과의 만남 혹은 접촉은 다른 모험기와는 다른, 『귀취등』 이야기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 '소문과 전설, 미지 사실의 실체 확인과

* 본 논문은 2025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학부 중국학 전공 교수

그 진상의 파악은 후바이 일행이 도굴 모험 중에 진행되는 중요한 활동으로, 『귀취등』의 서사가 추리 서사 장르의 자장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귀취등』에서 보이는 단서와 증거의 수집 및 해독 과정은 소략하고 드러난 진상은 거칠고 작위적이라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키워드: 중국 웹소설, 귀취등(鬼吹燈), 천하패창, 도묘소설(盜墓小說), 모금교위(摸金校尉) 풍수(風水)

1. 들어가기

천하패창(天下霸唱)의 소설 『귀취등(鬼吹燈)』은 2005년 12월 14일 중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TianYa(天涯)에 처음 발표되었다. 천하패창은 1977년 생 텐진 출신 웹소설 작가 장무야(張牧野)의 필명이다. 그는 사전에 공포소설 몇 편을 창작해본 다음, 『귀취등』의 연재를 시작하였다.¹⁾ 도굴을 소재로 한 일종의 모험기인 『귀취등』은 곧바로 인기를 얻었다. 인기에 힘입어 『귀취등』은 2006년 1월 치텐중원왕(起點中文網)으로 옮겨 연재를 지속하였다. 2006년 12월 단행본 출간이 시작되어 2008년까지 전체 8편으로 출간을 마쳤다.²⁾ 일

1) 『귀취등』의 창작에 앞서 천하패창은 「흉택맹귀(凶宅猛鬼)」, 「우야담귀사(雨夜談鬼事)」, 「음삼일하(陰森一夏)」 등 세 편의 짧은 공포소설을 창작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默默有聞也, 「爲給女友解悶創作, 作者侵權自己的原著?: 『鬼吹燈』的幕後故事」, <https://news.qq.com/rain/a/20211015A0402W00>를 참조할 수 있다.

2) 『귀취등』은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어 있다. 『귀취등1: 정절고성(鬼吹燈之精絕古城)』, 『귀취등2: 용령미궁(鬼吹燈之龍嶺迷窟)』, 『귀취등3: 운남충곡(鬼吹燈之雲南蟲谷)』, 『귀취등4: 곤륜신궁(鬼吹燈之崑崙神宮)』 4편이 제1부에 해당하며, 『귀취등5: 황피자분(鬼吹燈之黃皮子墳)』, 『귀취등6: 남해귀허(鬼吹燈之南海歸墟)』, 『귀취등7: 노정상서(鬼吹燈之怒晴湘西)』, 『귀취등8: 무협관산(鬼吹燈之巫峽棺山)』 등 4편이 제2부에 속한다. 각 편의 이야기는 저마다 독립성이 강하다. 도굴 활동과 모험 등이 전개되는 등 이야기가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1부는 정절고성을 탐사한 이들이 자신들에게 씌워진 저주를 풀기 위해 목진주(電塵珠)의 행방을 쫓아 탐험을 행하는 것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고, 2부는 진시황의 조골경(照骨鏡)을 찾아 나섰던 일행 중 소녀 아령(阿玲)이 생명이 위중해

설에서는 『귀취등』의 도서 판매량이 정식 출간본 200만권 이상, 불법 출간본 1000만권 이상일 것이라 추정한다.³⁾

이후 『귀취등』은 2010년대 중반 중국 영화 및 드라마 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조우하였다. 영화와 드라마의 제작 편 수가 많아지고 장르물 제작이 본격화되면서 『귀취등』이 중국 영화와 드라마의 중요한 IP로 부상한 것이다.⁴⁾ 2015년 영화 『구층요탑(九層妖塔)』과 『심용결(鬼吹燈之尋龍訣)』이 영화관에서 상영되었고⁵⁾, 2016년부터는 OTT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져 온라인에서 관객에게 선보였다.⁶⁾ 『귀취등』 관련 영화가 원작에서 모티브와 인물을 차용하거나 주요 부분을 각색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귀취등』 드라마는 각 편의 이야기 자체를 영상으로 옮기는 데 주력하였다. 『귀취등』 드라마는 2016년 12월 『귀취등: 정절고성(鬼吹燈之精絕古城)』(이후 『정절고성』으로 약칭)이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전체 8편 중 7편이 이미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나머지 한 편 『귀취등: 무협관산(鬼吹燈之巫峽棺山)』이 2027년 공개를 목표로 제작 중에 있다.⁷⁾ 이 작품 이후 『귀취등』을 IP로 한 영화와 드라마 제작은

지자 그녀를 구하고자 시단(尸丹)을 찾는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다. 2부에서는 과거 도굴자들의 얽힌 관계가 드러나기도 한다.

- 3) 이에 관해서는 「天下霸唱, 他的原名叫張牧野, 他是如何開始進行『鬼吹燈』創作的」, 來源: 家驊侃娛樂, https://www.sohu.com/a/465370492_121086912를 참고할 수 있다.
- 4) 중국 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IP' 개념이 보급되면서 그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것은 대략 2015년경이다. 『귀취등』은 'IP' 개념 초기의 대표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귀취등』과 관련되어 각종의 여러 판권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바로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
- 5) 대작영화급으로 만들어진 두 영화는 각각 중국 영화 상영 황금 시즌인 국경절 시즌과 연말연시 시즌에 개봉하여 6.8억 위안(2015년 자국 영화 10위)과 16.81억 위안(2015년 자국 영화 3위)의 흥행 수입을 획득하였다. 두 영화 공히 흥행 기록은 나쁘지 않았지만, 평단과 관객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였다.
- 6) 『귀취등』 관련 영화와 드라마 제작 현황은 Baidu.baikе의 관련 항목 (<https://baike.baidu.com/item/%E9%AC%BC%E5%90%B9%E7%81%AF/10790>)을 참조할 수 있다.
- 7) 『귀취등』은 영화화 또는 드라마화될 때, IP 판권 계약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작품마다 제작사가 다른 경우는 물론이고, 한 작품이 다수 제작사에 의해 중복 제작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귀취등』의 판권 문제에 관해서는 袁心雨·吳婧, 「人點燭, 鬼吹

대체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취등』 드라마가 시간이 갈수록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웹소설에서 시작하여 단행본 출간, 영화 및 드라마, 만화, 온라인 게임 등으로 확장하면서⁹⁾ 20년 가까이 생명을 유지하였지만, 이제 『귀취등』의 인기도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귀취등』은 소설 『도묘필기(盜墓筆記)』와 더불어 ‘도굴소설(盜墓小說)’이라는 새로운 하위 장르 소설의 장을 열고 한때 ‘도굴 붐(盜墓熱)’을 불러일으켰다.¹⁰⁾ 21세기 중국 웹소설 발전 과정에서 분명히 한 획을 그었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하지만, 『귀취등』과 『도묘필기』 두 작품을 제외하고는 달리 주목할 만한 작품이 나오지 않음으로써¹¹⁾ ‘도굴소설’이라는 장르는 진작 유명무실해졌다. 물론, 언젠는 새로운 작품이 나와서 관련 장르가 활력과 생명력을 되찾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보자면 『귀취등』을 대표로 하는 도굴소설 장르는 사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휴지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¹²⁾

燈,版權問題必須爭”——『鬼吹燈』版權的那些事,

<https://baijiahao.baidu.com/s?id=1765133137509265479&wfr=spider&for=pc>를 참고할 수 있다. 한편, 『귀취등: 무협관산』은 이미 다수의 『귀취등』 드라마를 제작한 관후(管虎)가 제작자로, 판아오밍(潘奧明), 장위치(張雨綺) 등이 주연배우로 참여한다. 이에 관련하여 <https://movie.douban.com/subject/35588220/>를 참조할 수 있다.

8) 더우반의 평점을 기준으로 할 때, 『용룡미굴』이 8.2점을 기록한 반면, 『운남충곡』은 6.4점까지 하락하였고, 스트리밍 수도 『정절고성』이 59억 회를 기록한 반면, 『운남충곡』의 경우 12억 회까지 줄었다. 평가뿐만 아니라 시청 횟수 등 모두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는 것이다. 劉向陽·吳青青, “想像力消費”視域下國產網劇的空間生產與文化消費—以“鬼吹燈”系列為例, 『當代電視』, 2022年 第2期, 72쪽.

9) 張宇, “論盜墓題材的影視改編及多元化產業發展”, 『戲劇之家』, 2016年 第03(上)期, 148-149쪽.

10) 韓穎琦에 따르면, 도굴소설은 2006년과 2007년 두 해 동안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다. 특히 2007년은 ‘도굴의 해(盜墓年)’라고 불리기도 했다. 韓穎琦, “盜墓小說緣何如此火”, 『文化與傳播』, 2013年 第2卷 第5期, 49쪽.

11) 許靜怡, “淺析盜墓文學的讀者接受與欣賞—以『鬼吹燈』為例”, 『戲劇之家』, 2016年 第07(下)期, 246쪽.

12) 사실, 중국 웹소설을 살펴보면, 일정한 유행이 존재한다. 도굴소설 이외에 한때 타임슬립 소설 또한 크게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는 이전만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위 장르 소

도굴소설 장르와 그 대표작 『귀취등』의 인기와 유행이 한차례 지나갔지만 본 연구는 도굴소설 『귀취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여, 중국 웹소설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적 다채로움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귀취등』이 중국 대중 장르소설 분야에 분명한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귀취등』이라는 작품이 어떤 장르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귀취등』이라는 이야기의 장르 세계가 구성되는 데 이 요소들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였는지, 그것들은 기존의 대중 통속 서사 장르와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 등에 대해서 살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굴 혹은 도굴자의 세계’, ‘이도공간(異度空間)에서의 모험’, ‘소문과 전설, 미지 사실의 실체 확인과 진상의 파악’ 등을 『귀취등』 이야기 세계를 구성하는 주 내용 요소로 보고 이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 진행의 편의성과 구체성을 위해, 분석 대상을 단행본으로 출간된 『귀취등』 8편 중 제1편에 해당하는 『정절고성』에 한정하기로 한다. 『귀취등』은 1부 4편과 2부 4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의 주석에서 언급했듯이 1부와 2부에는 각각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 맥락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연관성은 비교적 느슨하다. 게다가 각 편의 이야기는 저마다 독립성이 강하고, 도굴 활동과 모험 등의 전개 양상 또한 편마다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된다.¹³⁾ 따라서 『귀취등』의 장르적 특징을 살피는 데 『정절고성』 한 편의 이야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정절고성』은 『귀취등』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귀취등』의 이야기 세계가 구성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모금교위(摸金校尉)—도굴자를 일컫는 말이다. 뒤에서 상론할 것이다.’로 성장

설의 유행은 독자 취향의 변화와 사회 분위기의 변동 등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그 유행이 문학의 확장과 자기 모색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13) 賈寬濤에 따르면, 『귀취등』은 이야기가 ‘무덤(墓穴)’ 중심으로 서술됨으로써 특이하게 ‘점식(點式)’ 분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장르소설이 ‘선식(線式)’ 분포의 이야기 방식을 채택하는 것과는 다르다. 賈寬濤, 『『鬼吹燈』系列小說敘事分析』, 『凱里學院學報』, 2017年 第35卷 第2期, 70쪽.

하게 되는 과정과 내력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기에 앞서 『정절고성』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정절고성(精絶古城)』의 구성과 세 가지 주 내용 요소

『정절고성』은 총 33개의 장(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33개의 장은 제1장부터 제18장까지의 전반부와 제19장에서 제33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¹⁴⁾ 『정절고성』의 중심 내용이자 『귀취등』 이야기의 본격 시작인 타클라마칸 사막의 ‘정절고성’ 관련 탐험은 제19장부터 제33장까지의 후반부에서 펼쳐진다. 이때는 시간적으로 약 1980년대 초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는 즈음이다.¹⁵⁾ 미국 월스트리트의 중국 화교 거물인사의 딸 셸리 양(Shirley 楊)이, 1년 전 ‘정절고성’ 탐사를 떠났다 실종된 아버지를 찾기 위한 조사팀을 꾸리게 되는데, 이 팀에 주인공 후바이(胡八一)와 그의 절친 ‘똥보’ 왕카이쉬안

14) 『귀취등』은 한국에 일부 번역 소개되었다. 『정절고성』이 『고스트랩프』 제1권(비밀지 하요새)과 제2권(정절국 여왕)으로, 『용령미궁』의 전반부가 『고스트랩프』 제3권(용고개의 지하 신궁)으로 출간되었다. 원래는 1부 전체를 다 번역 출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세 권만 번역하고 그쳤다. 『고스트랩프』의 번역은 치텐중원왕과의 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고스트랩프』의 제1권은 『정절고성』의 제1장부터 제18장, 제2권은 제19장부터 제33장까지에 해당한다. 제3권은 『용령미궁』의 제1장부터 제17장까지에 해당한다. 본 논문의 『귀취등』 번역 인용은 『고스트랩프』에서 직접 가져왔거나 일부 참고하여 수정, 반영하였음을 밝힌다.

15) 천하패창이 『귀취등』의 시간적 배경을 개혁개방 이후로 설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혁개방 시기는 국가 행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때라 도굴이라는 범법 행위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또 같은 이유로 해외 세력의 중국 국가 유물 탈취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에 대한 방비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이것은 정절고성 탐사 이유 중 하나였다—, 또 과학 기술 및 경제의 발전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 비교적 ‘아날로그한’ 방식의 탐험과 모험의 구상과 구현이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王凱旋)이 탐사대장과 보조로 합류하게 된 것이다.¹⁶⁾ “정절국(精絕國)은 서역 36국 중 가장 큰 나라로 전성기 때는 서역국가 중 대적할 나라가 없었지만…… 번성기 이후 큰 재난이 닥치면서 여왕이 죽고 고성 역시 사라져 버렸다”¹⁷⁾고 알려져 있다. 셸리 양 아버지의 막역한 친구이자 서역 전문 연구자인 천(陳) 교수, 그의 조수이자 연구원 하오(郝) 선생, 그 외 3명의 남녀 대학원생에 더해, 안리만(安力滿)이란 이름의 노인이 현지에서 사막 안내자로 이 탐사대에 참여하여 정절고성으로의 탐험을 진행한다.

전반부인 제1장부터 제18장까지는 후바이·셸리 양·똥보가 주축을 이뤄 정절고성 탐험을 수행하기 이전, 후바이가 ‘도두(倒斗)–도굴을 지칭하는 은어이다’¹⁸⁾ 활동을 시작하게 되기까지의 내력과 그가 겪은 모험에 관한 이야기이다. 주로 후바이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는 『귀취등』에서 『정절고성』의 전반부는 후바이의 회상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는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다. 제1장과 제2장까지의 첫 번째 부분은 후바이의 조부 후귀화(胡國華)·아버지 후윈취안(胡雲宣)의 경력, 후바이가 지식청년으로 내몽고 오지로 하방을 떠나기 전까지의 대략적 경위 등이 서술된다.¹⁹⁾ 이 부분에서 주목

16) 후바이와 왕카이취안은 1951년 생으로 설정되었다. 그들의 이름에는 시대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후바이는 인민해방군 건군일인 8월 1일에 태어나 원래 ‘젠권(建軍)’이란 이름을 가졌었다. 하지만, 친구들 가운데 워낙 비슷한 이름이 많아 ‘바이(八一)’로 개명하였다. 李盛濤는 천하패창이 실제 역사와 삶의 모습을 삽입해 넣은 것이 『귀취등』의 허구 이야기를 사실처럼 느끼게 하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소한 구상과 설정이 바로 그 예가 될 것이다. 李盛濤, 「網絡小說對中國傳統小說敘事的激活—以『鬼吹燈』爲例」, 『淮陰師範學院學報』, 第32卷, 2012年 2月, 75쪽.

17) 천하패창 지음, 곰비임비 번역, 『고스트랩프 제2권: 정절국 여왕』, 도서출판 엠빈, 2007년 12월, 32쪽.

18) 중국의 무덤이 곡식 한 말(斗)을 담아 재는 용기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한 말 찌리 용기를 뒤엎는(倒) 행위’와 유사하다하여 도굴을 ‘도두’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19) 조부 후귀화가 아편 중독으로 온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온갖 기이한 일을 겪다가 풍수를 익혔을 뿐만 아니라 ‘도두’ 일에도 손을 댄 경력이 있는 반면, 부친 후윈취안은 혁명 사상을 접하여 혁명에 투신하였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때까지 군에서 해방을 위해 싸웠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후바이 집안은 갖은 풍파를 겪었다. 결국 조부는 공개비판 때 겪은 고초로 몸져누웠다 세상을 떠났다. 후바이는 할아버

할 내용은 잔본(殘本) 『십육자 음양 풍수 비술(十六字陰陽風水秘述)』이라는 책에 관한 부분이다. 후바이가 도굴 활동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풍수술을 익혔기 때문인데, 그 풍수술의 연원이 바로 후귀화가 남긴 『십육자 음양 풍수 비술』에 있었다. 특히, 아편 흡입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괴이한 일을 겪던 후귀화가 잔본 『십육자 음양 풍수 비술(十六字陰陽風水秘述)』을 얻게 되는 과정은 『귀취등』 이야기 세계의 중요한 특징을 드러내준다.

제3장에서는 후바이가 하방 기간 내몽고의 오지 마을 ‘강강촌락(崗崗營子)’에서 겪은 일화가 소개된다. 이 일화 역시 『귀취등』 이야기 세계의 분위기와 장르적 특징을 예시(豫示)한다. 제4장부터 제9장까지는 군인이 되어 티벳 곤륜산 오지에서 근무하게 된 후바이가 소속 부대원 및 지질탐사대원들과 함께, 병참 기지 건설 장소 물색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겪은 모험에 관한 이야기이다.²⁰⁾ 곤륜산에서 후바이는 최초로 위험천만한 모험을 경험하는데, 이 경험은 후바이가 ‘모금교위’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또한 여기서 희생된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어려운 동료 가족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가 ‘도두’ 활동에 나서게 되는 동기로 작용하였다.²¹⁾

제10장부터 제18장까지는 불명에 제대한 후바이가 베이징 판자위안(潘家園)의 골동품상 ‘금니(大金牙)’를 만나, 본격적으로 ‘모금교위’로 나서기로 결심하고, 땡보와 함께 내몽고 강강촌락 부근 흑풍구(黑風口) ‘야인골(野人溝)’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나라 왕과 귀족의 묘지를 도굴하러 가서 겪게 되는 모험이 그려진다. 야인골에서의 도굴 모험은 후바이에게 있어 첫 번째 ‘도두’ 활동으로, 이후 반복되는 도굴 모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귀취등』의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회를 토로하였다. “할아버지는 평생 다른 사람의 풍수를 봐주고 묘 자리를 골라줬지만, 정작 당신은 화장으로 인생을 마감했다. 이 얼마나 무상한가.” 『고스트랩프 1권』, 36쪽.

20) 영화 『구충요탑』은 이 부분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 영화로 각색하였다.

21) “하지만, 전장에서 목숨을 바친 전우들은 어떤가? 그 사람들 부모는 누가 돌봐줄까? 병원비, 약값 그리고 그 형제자매의 학비는? 얼마 안 되는 위로금으로 끼니나 제대로 때울 수 있을까? …… 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스트랩프 1권』, 146-147쪽.

도굴 모험은 기본적으로 ‘탐험 공간으로의 진입-탐험 공간에서의 모험(각종 위험에의 노출과 동료의 희생, 난관의 봉착과 돌파, 여러 의문의 해소 및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탐험 공간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데, 아인골에서의 도굴 모험이 바로 그 시작이다. 이후 후바이는 금니의 주선으로 똥보와 함께 설리 양의 탐사대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귀취등』 이야기가 본격 전개된다.

이렇게 『정절고성』은 후바이가 ‘모금교위’로 성장까지의 내력과 그가 ‘도두’ 활동을 펼치면서 겪게 되는 사건, 그리고 똥보·설리 양 등과 팀을 이뤄 진행하는 ‘정절고성’ 관련 탐험으로 채워져 있다. 말하자면, 『정절고성』 나아가 『귀취등』은 ‘모금교위 후바이 일행의 도굴 모험기’라고 할 수 있다. 후바이 일행이 어떤 이유 혹은 목적에서 도굴 탐험에 돌입, 탐험의 장소—주로, 지하에 위치한 묘역(墓域)이나 동굴인 경우가 많다—에서 온갖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기이한 일을 겪고서 뭔가를 얻거나 알아낸 후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일련의 과정이 한 편 이야기의 대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야기의 대체를 이루지만, 『귀취등』의 이야기 세계를 구성하는 내용 요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도굴과 도굴자의 세계’, 둘째는 ‘이도공간(異度空間)에서의 모험’, 셋째는 ‘소문과 전설, 미지 사실의 실체 확인과 진상의 파악’ 등이다. 『귀취등』의 이야기 세계는 위의 세 가지 주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도굴과 도굴자의 세계’라고 하는 『귀취등』의 내용 요소는 도굴소설 『귀취등』의 장르적 차별성을 규정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이전까지 중국의 대중 통속소설에서 도굴자가 주인공으로 설정되거나 도굴 행위가 중요하게 다뤄진 경우는 없었다. 『귀취등』의 성과와 차별적 특성은 바로 ‘도굴과 도굴자의 세계’를 처음으로, 그리고 매우 그럴법하게 구현해냈다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도공간’의 설정과 ‘모험’의 수행은 대중 통속 서사 장르에서 자주 활용하는 내용 요소이다. 『귀취등』은 지하 묘역이나 동굴 등의 장소에서 모금교위가 펼치는 모험이 주된 내용이라 기존 대중 통속 서사 장르에서 자

주 볼 수 있는 요소가 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기서는 볼 수 없는 『귀취등』 특유의 낯선 상황과 모습 또한 보여준다. 이 내용 요소는 다른 대중 통속 서사와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부분이다. ‘소문과 전설, 미지 사실의 실체 확인과 진상의 파악’은 후바이 일행이 펼치는 ‘도두’ 활동의 실제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무덤 속에 뭔가를 얻으러 들어가지만, 결국은 물품이나 보물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떤 소문이나 전설의 실체를 확인하거나 그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데로 귀결된다. 이러한 면에서 『귀취등』은 추리 서사 장르의 자장(磁場)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귀취등』의 성패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아래에서는 『정절고성』에 나타난 각 내용 요소를 통해 『귀취등』의 장르 요소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도굴과 도굴자의 세계

앞서 언급하였지만, 『귀취등』은 중국 웹소설 혹은 중국 대중 통속소설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고 새로운 하위 장르 갈래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의 고전 소설이나 이야기 중에도 ‘도굴’과 관련된 내용이 적지 않다.²²⁾ 하지만, 도굴자를 주인공으로 채택하여 ‘도굴과 도굴자의 세계’를 핵심적 내용 요소로 삼은 경우는 『귀취등』이 처음이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이야기 세계가 열렸고 독자는 이 새로운 세계에 반응하였다.

중국에서 ‘도굴’은 국가가 금하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문학의 소재로 잘 다뤄지지 않고 기피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미디어의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도굴은 현재도 어디선가 자행되고 있는 행위이다.²³⁾ 게다가 죽은

22) 이와 관련해서는 王楠, 「網絡盜墓小說對古代盜墓敘事的繼承與發展」, 『中國小說論叢』 제55집, 2018년 8월 31일, 120-131쪽을 참조할 수 있다.

자와 그들의 물건, 그리고 그들이 속한 영역에 접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생소할 뿐만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을 촉발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도굴은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²⁴⁾ 천하패창은 도굴과 관련된 이러한 사실, 즉 도굴 활동이 사실로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생소하며 그와 동시에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죽은 자와 그들의 물건 및 세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미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규칙과 금기가 작동한다는 점 등의 사실에 입각하여 적절하게 상상력을 발휘, ‘도굴과 도굴자의 세계’를 만들어냈다.²⁵⁾ 그리고, 이 작업의 시작은 ‘모금교위’-‘도두’를 행하는 도굴자를 지칭한다-라는 존재를 소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천하패창은 ‘모금교위’를 실제 역사기록에서 가져왔다. 한(漢) 나라 때 건안 칠자(建安七子) 중 한 사람인 진림(陳琳)이 쓴 「조조 토벌을 위한 격문(爲袁紹檄豫州)」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직접 능묘를 파헤쳐 관을 쪼개고 시신을 드러내고 보물을 훔쳐갔다. …… 게다가 조조는 발구중랑장(發丘中郎將)과 모금교위(摸金校尉)까지 두어 가는 곳마다 무덤을 훼손했다.”²⁶⁾ 조조가 왕의 능묘를 파헤쳐 보물을 취득, 모자란 군량을 보충하

23) 예를 들어, 도굴범 야오위중(姚玉忠)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면 도굴 행위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朱健勇, 「盜墓祖師翁“混迹圈內30載, 僅靠兩樣東西 尋龍定穴”, 『法制晚報』, 2017年 12月 6日字,

https://news.youth.cn/sh/201712/t20171206_11112624.htm을 참조할 수 있다.

24) 도굴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陳紅旗, 「盜墓想像和解密視域下的“精絕”故事—讀天下霸唱『鬼吹燈之精絕古城』, 『網絡文學評論』, 2017年 第1期, 106쪽을 참조할 수 있다.

25) 劉向陽·吳青青은 중국 영화 연구자 陳旭光의 ‘상상력 소비(想像力消費) 개념을 빌려, 『귀취등』 시리즈의 드라마가 ‘인터넷 세대’ 젊은 관객의 ‘상상력 소비’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劉向陽·吳青青, 앞의 글, 70쪽). 이는 드라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원작 소설에도 해당된다. 『귀취등』은 여러 가지 기본적 사실이나 기록에 근거해서 상상력을 활발히 발휘함으로써 젊은 독자의 호응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26) 웨난 외 지음, 정광훈 옮김, 『황제의 무덤을 훔치다—중국 도굴의 역사』, 돌베개, 2009년, 105쪽.

였고, ‘발구중랑장’과 ‘모금교위’ 같은 직책을 만들어 도굴을 본격적으로 자행했다는 기록에서 착안, ‘모금교위’라는 존재를 소환해낸 것이다. 물론, ‘모금교위’는 일반적인 도굴꾼(盜墓敵)과는 다르게 설정된다.²⁷⁾ 『귀취등』에 따르면, 도굴꾼의 경우 도둑질을 위해 마구잡이로 묘를 파헤치며 규칙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반면, ‘모금교위’는 큰 무덤만을 파헤쳤고, 도굴 중에는 항상 동남쪽에 촛불을 켜둔 후 관을 열어 재물을 취하며, 시신을 반드시 정중히 다루고 만약 도굴 중에 촛불이 꺼지면 보물들을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고 세 번 절을 한 후 왔던 길로 되돌아 나오는 등²⁸⁾ 나름의 규칙을 준수한다. 또 그들은 한 번에 한 가지 물건에만 손을 대거나 한 번 손을 댄 무덤은 다시 손을 대지 않으며²⁹⁾, 도굴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껴 무덤 안에 산 사람의 숨결을 남기지 않고 시체를 향해 숨을 내뿜지 않으며³⁰⁾, 시체는 맨손으로 만지지 않고 반드시 장갑을 끼고 만지는³¹⁾ 등 여러 가지 내규 또는 금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도두’, ‘종자(粽子)’, ‘대종자(大粽子)’, ‘건종자(乾粽子)’, ‘육종자(肉粽子) 등 자기들만의 은어를 사용하며³²⁾, 필요에 따라서

27) 天下霸唱, 『鬼吹燈1: 精絕古城』, 湖南文藝出版社, 2019年, 75쪽.

28) ‘귀취등’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도굴을 행할 때 반드시 묘의 동남쪽 구석에 촛불을 켜두어야 하며, 만약 도굴을 행하다 촛불이 꺼지면 즉시 멈추고 그곳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를 무덤의 주인이 도굴 행위를 원하지 않아 촛불을 불어 꺼버린 것이라고 해석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은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다. 무덤 속에 켜둔 촛불이 갑자기 꺼졌다는 것은 밀폐된 무덤 속에 산소가 희박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9) 天下霸唱, 『鬼吹燈2: 龍嶺迷窟』, 湖南文藝出版社, 2019年, 41-42쪽.

30) 天下霸唱, 『鬼吹燈1: 精絕古城』, 97-98쪽.

31) 맨손으로 시체를 만지면 시체가 깨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천하패창, 『고스트랩프 1권』, 205쪽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湖南文藝出版社의 『鬼吹燈1: 精絕古城』에서는 이 대목의 약간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고스트랩프1·2』와 湖南文藝出版社의 『鬼吹燈1: 精絕古城』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자의 내용이 후자에서는 약간씩 누락된 경우가 있다. 『고스트랩프』가 원본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32) 『귀취등』에 따르면, ‘종자’는 도굴꾼 사이에서 비교적 잘 보존된 시신을 지칭하는 은어이다. ‘대종자’는 강시나 악귀처럼 깨끗이 잘 보존되지 않은 시신을 말하며, ‘건종자’는 시체가 다 썩어 흰 뼈만 남은 시신을 말한다. ‘육종자’는 값나가는 물품을 많이 달고 있

는 자기들만의 암어(暗語)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기도 한다.³³⁾ 말하자면, 이들은 잡범 수준의 도굴꾼이 아니라 자기 체계와 계통, 기술을 가진 전문가 집단인 것이다.³⁴⁾ 사실, ‘모금교위’도 그 집단의 일부일 뿐이다. 『귀취등』의 이야기가 발전하면서 도굴자 집단의 대략적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도굴자 집단은 모금파(摸金派), 발구파(發丘派), 반산파(搬山派), 사령파(卸領派) 네 문파로 나뉘며, 문파마다 각기 다른 장기를 가지고 있으며 작업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³⁵⁾

한편, 주인공 후바이가 모금교위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풍수 방면

는 시신을 지칭한다. 天下霸唱, 『鬼吹燈1: 精絕古城』, 70쪽.

33) 관련 대목은 다음과 같다. “저울에 천금이 걸리고 호수에서 점치는 소리를 낸다. 갈고리를 잡고 막대기를 차고 뒤집어진 말이 꼭대기까지 찬 황태자여, 달이 걸린 곳에서 멀리까지 빛을 발하니 감출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은 설리 양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나는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도굴 관련 은어였다. ……설리 양이 말한 몇 마디 뜻은 대충 이랬다. ‘네 심보가 못했다. 입으로 헛소리를 지껄이다니. 보아하니, 닻은 솜씨가 뛰어난 도굴꾼 같다. 내 두 눈은 절대 속이지 못한다.’” 천하패창, 『고스트랩프2』, 208-209쪽.

34) 이들이 일종의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은 그들의 전문적 기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도굴자는 ‘望’·‘聞’·‘問’·‘切’의 전문적 기술을 갖춰야 했다. ‘望’은 풍수를 ‘보고’ 무덤의 위치를 알아내는 기술, ‘聞’은 토양의 냄새를 맡아 무덤의 지질 구조와 토양의 질을 감별해내는 기술, ‘問’은 탐문을 통해 주변 사람으로부터 무덤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기술, ‘切’은 무덤까지 정확하게 땅을 파 들어가는 기술을 말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는 『鬼吹燈2: 龍嶺迷窟』, 49쪽에 기술되어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 웨난의 『황제의 무덤을 훔치다』의 328-330쪽에도 실려 있다. 다만 『鬼吹燈2: 龍嶺迷窟』에는 이들을 종합한 기술을 뜻하는 ‘聽’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기존의 도굴 관련 연구서 등을 천하패창이 참고한 것으로 짐작 가능하다.

35) 『귀취등』에 따르면, 모금파는 ‘모금교위’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풍수술을 ‘도두’에 활용하는 장기를 가지고 있고, ‘반산파’는 일반적으로 ‘반산도인(搬山道人)’이라 불리는 것처럼 겉으로 도인으로 가장하며, 값나가는 물건이 도굴 대상이 아니라 주로 저주를 푸는 효능을 발휘하는 물품이 목표 대상이다. 설리 양의 외할아버지인 일명 ‘자고초(鷓鴣哨)’가 ‘반산파’의 마지막 인물이다. ‘자고초’에 관한 활약상은 2편 『귀취등: 용령미굴』에서 소개된다. ‘사령파’는 ‘사령역사(卸領力士)’라고 불리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완력과 기구를 이용해서 도굴을 행하며, 집단을 이뤄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령파와 관련된 이야기는 주로 7편 『귀취등: 노정상서』에서 언급된다. ‘발구파’와 관련된 이야기는 『귀취등』에서 따로 찾아볼 수 없다.

에 조예가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³⁶⁾ 할아버지가 남긴 『십육자 음양 풍수 비술』—이 책은 집안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었던 관계로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간신히 훼손을 피하였다—의 내용을 그는 하방 시기와 군인 시기 동안 심심풀이로 틈틈이 익혀두었다. 풍수술을 익힘으로써 그는 무덤의 소재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야인굴’에 있는 고대 무덤을 찾아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후바이가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고, 설리 양의 탐사팀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도 풍수지리에 입각하여 천문지리(天文地理)에 관한 지식을 늘어놓아 탐사팀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³⁷⁾ 사실, 풍수술은 고대부터 믿는 자는 믿지만, 반면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인식의 영역이다.³⁸⁾ 믿는 이들에게 풍수는 반드시 따지고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³⁹⁾ 풍수술을 신봉하지 않더라도 기운이 좋은 곳에 집과 무덤을 쓰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나을 것이라는 생각은 동양문화권에서 보편적이다.

이렇게 천하패창은 후바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도굴자의 ‘도두’ 활동과 풍수가의 풍수술을 결합하여 『귀취등』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 요소로 활용하였다. 후바이가 풀어놓는 ‘도두’와 풍수 관련 여러 지식과 정보 등은 『귀취등』에서만 향유할 수 있는 즐길 거리로서, 『귀취등』이 타 장르의 소설들은 물론이고

36) 금니는 호바이의 자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호형, 정말 대단하오. …… 형씨처럼 풍수를 잘 알면서 군대도 공병으로 다녀와 토목공사에 대해서도 잘 아는 인재를 만나다니, 정말 대단한 인연이오.”(천하패창, 『고스트랩프1』, 144쪽) 물론, 이에 더해 후바이는 할아버지로부터 ‘도두’ 활동에 관해 전해들은 바가 많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었다.

37) 천문지리에 관한 질문을 받고 후바이는 상당히 길게 답변한다. 해당 부분을 요약 발췌한다. “…… 풍수의 요지를 택할 때도 천문학의 정수를 이용했어요. 천지 간 거리는 8만 4천 리, 인간의 심장과 신장의 거리는 여덟 치 너 푼, 인체의 금목수화토는 …… 하늘에는 24성수(星宿)가 있고, 하루는 24시간, 1년은 24절기가 있는데, 예로부터……’ …… ‘히히히, 내가 아는 건 이게 전부였는데, 더 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다.” 천하패창, 『고스트랩프2』, 27-29쪽.

38) 洪丕謨·姜玉珍, 『中國古代風水術』, 上海古籍出版社, 2008年, 第340頁 참조.

39) 한국영화 『과묘』에서 배우 최민식이 연기한 풍수사 김상덕은 풍수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대한민국 상위 1%에게 풍수는 과학이자 종교다.”

여타 모험기 등과도 차별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물론, 천하패창이 누차 밝혔듯이, 그는 도굴의 경험은커녕 명(明) 십삼릉조차 가보지 않은 관련 분야의 문외한이며, 풍수와 역경(易經) 등도 직접 연구해본 적이 없고 단지 여자 친구의 아버지에게 귀동냥한 경험이 전부일 뿐이라고 한다.⁴⁰⁾ 하지만, 그가 도굴 및 풍수 관련 지식과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며⁴¹⁾, 이 바탕 위에서 ‘도굴과 도굴자의 세계’가 구축되었을 것이라는 점 또한 자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사안이 있다. ‘귀취등’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굴이라는 제재가 죽은 자 및 그들의 영역 등과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귀신이나 혼령 등과 접점을 가질 수 있으며, 실제로 『귀취등』의 이야기는 귀신 혹은 혼령의 존재를 사실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일종의 장르적 특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인골 지하묘실에서의 경험—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론할 것이다—을 통해 후바이는 귀신 혹은 혼령의 존재를 목격하고 이를 받아들인다.⁴²⁾ 『귀취등』의 세계는 인간과 귀신이 공존할 수 있는, ‘미지의 신비로운 세계의 일부’로 설정되고 있으며 이야기 속에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사실, 이러한 조짐은 『귀취등』의 초반에 이미 드러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절고성』의 제1·2장은 후바이의 할아버지 후귀화에 관한 내용이다. 그는 아편 흡입으로 가산을

40) 이와 관련해서는 「天下霸唱: 我沒盜過墓」, 『網易訪談』, 2006年 12月 15日,

https://www.163.com/news/article/32DBARPK00011229_all.html을 참조할 수 있다.

41) 앞서도 거론했듯이, 도굴이나 풍수 등과 관련된 지식에 관해 천하패창은 기존의 연구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도굴 관련 전문 기술이나 도구, 특히 낙양삽(洛陽鏟)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은 웨난의 『황제의 무덤을 훔치다』에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천하패창은 이렇게 기존의 관련 분야 연구서를 참고하여 이야기에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42) 이와 관련하여 후바이는 이렇게 언급한다. “나는 원래 귀신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았지만, 이렇게 실제로 보고 나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 이곳에서 겪은 일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으로, 오감이 아닌 육감으로만 이해할 수 있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자연 현상을 초월한 것이긴 하지만, 미지의 신비로운 세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천하패창, 『고스트랩프1』, 240-241쪽.

탕진하고 여러 기이한 경험을 겪은 후 한 법사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풍수술을 익히게 되었다. 잔본 『십육자 음양 풍수 비술』 역시 이 법사로부터 얻은 것이다. 후귀화의 일화들, 예를 들어 쥐와 얽힌 일들, 혼령이 깃든 종이 부인, 귀신에게 간과 심장을 빼어 먹고 그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된 일⁴³⁾ 등은 『귀취등』 세계의 특성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귀취등』은 귀신과 인간의 공존이 가능한 세계, 그래서 보통사람의 일상의 현실과는 다른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이기까지 한 세계—이를 이도공간(異度空間)이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를 가상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다.

사실, 대중 통속소설 등에서 이러한 세계 인식과 설정은 낯설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정도이다.⁴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계의 설정이 얼마나 받아들일만한가, 이다. 자칫 잘못하면 『귀취등』은 허황한 귀신 이야기로 전락할 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를 방지하고, 『귀취등』 이야기에 가독성뿐만 아니라 사실성을 부여한 것이 각종 역사 지리 관련 지식과 정보까지를 포함한 ‘도굴과 도굴자의 세계’ 관련 지식과 정보 등이라고 볼 수 있다. 후바이는 오지에서의 하방 생활 경험, 군인으로서의 공병(工兵) 경험, 중월전(中越戰) 참전 경험 등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다. 이로 인해 후바이는 도굴 경험이 있는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각종 지식과 정보—도굴의 역사, 역대 중국의 능묘 건축 지식, 지하 묘실의 구조에 관한 지식, 음양오행 관련 지식, 고대

43) 후귀화가 귀신에게 간과 심장을 빼앗기고 그의 하수인 노릇을 한 대목은, 치덴중원왕에는 있지만, 단행본으로 출간된 湖南文藝出版社의 『鬼吹燈1: 精絕古城』에서는 빠져있다—치덴중원왕의 『귀취등』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한 『고스트랩프1』에는 이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분량상의 문제로 누락시켰을 가능성도 있고, 해당 이야기가 『귀취등』 이야기의 전체적 성격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생략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귀취등』 이야기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 전체 『귀취등』의 내용에 귀속시켜 파악하고자 한다.

44) 賈寬濤는 도굴소설과 현환소설(玄幻小說), ‘타임슬립 소설(穿越小說)’ 등이 모두 ‘이도공간’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식—예를 들어 도굴소설은 이원(二元) 공간의 공존을 기본으로 하지만, 현환소설의 공간은 일원(一元)적이며, 타임슬립 소설은 결국 하나의 공간이다—에서는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賈寬濤, 「網絡盜墓小說的文體特徵及其價值探究」, 『重慶文理學院學報』, 第236卷 第2期, 2017年 3月, 第37頁.

의 도굴 방지 기술, 순장 관련 지식 등등—뿐만 아니라 동북 지역 및 서역의 문화 지리 정리, 동북 소수민족에 대한 지식, 각종 군사 정보 지식 등 또한 폭넓게 갖추고 있었고, 중요한 사건 전개 상황에 따라 관련 내용을 풀어놓는다. 사실, 이러한 지식과 정보 등은 전문가 수준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도굴과 탐험 및 모험 등과 관련된 여러 잡다하고 흥미로운 사실과 정보가 담겨 있어, 자칫 허황하거나 또는 단조로울 수 있는 이야기와 『귀취등』의 세계를 그럴싸하고 다채롭게 보이도록 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도굴과 도굴자의 세계’를 구성하는 상상과 이야기, 지식 및 정보 등은 『귀취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요소로서 『귀취등』에 이전 장르 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재미와 차별성은 물론이고 이야기의 설득력과 타당성 또한 부여하였다.

4. ‘이도공간(異度空間)’에서의 모험

『귀취등』은 모금교위 후바이 일행의 도굴 모험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소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도굴과 모험을 감행하는 내용이 바로 『귀취등』 이야기의 본체에 해당한다. ‘모금교위’가 행하는 모험은 『귀취등』에서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편폭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들이 행하는 모험은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도공간’으로의 진입이고, 둘째는 괴생명체와의 대면, 셋째는 초현실적이고 기이한 상황의 경험이다.

『귀취등』의 주 이야기 공간은 보통 사람의 일상적 생활공간이 아니다. 『정절고성』을 예로 들자면, ‘곤륜산의 골짜기’, ‘우심산(牛心山) 야인골의 지하 묘굴’, ‘정절고성의 지하궁전 및 묘지’ 등이 주 이야기 공간인데, 이곳들은 모두 지리적으로 매우 외지고, 환경적으로도 일상적 삶이 불가능한 장소에 위치해 있다. 한마디로 보통 사람들은 접근할 이유가 없고 접근하려 해도 접근 자체

가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곳들은 기본적으로 지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그 자체로 고립적이고 폐쇄적이다. 따라서, 이곳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과 시련을 거쳐야 한다. ‘곤륜산’에서는 고산증의 고통을 견뎌야 했고 빙하에서 미끄러져 목숨을 잃게 될 위험 또한 감수해야 했다. ‘야인굴’에서는 원시 수풀을 헤치고 나가야 하는데 언제 어디서 야수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며,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좁은 동굴 통로 또한 지나야 했다. ‘정절고성’에서는 한정된 물과 양식을 가지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면서 ‘검은 사막(黑沙漠)’에서 며칠 동안이나 모래폭풍에 갇혀야 했고, 거대 행군 거미 떼를 만나기도 하였다. 이 공간으로 진입을 피하는 때부터 위험한 모험이 시작되는 셈이다. 그런데, 진입 시도와 함께 시작되는 이러한 모험은 일종의 통과 의례에 해당한다. 첫 번째 모험에서 만나는 각종 장애물들은 ‘이도공간’으로의 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장벽으로 설정된 셈이다. 따라서, 피치 못할 희생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과정 자체는 클리셰에 가까워 독자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지하 묘실 혹은 지하의 동굴 등에 들어서면서 후바이 일행의 모험은 본격화된다. 이 모험에서 두드러진 것은 괴생명체와의 대면과 초현실적이고 기이한 상황의 경험이다. 괴생명체의 등장과 위협은 쥘 베른의 『해저 2만리』와 『지구 속으로』 등과 같은 탐험소설 이래로 흔히 볼 수 있는 설정이다. 『정절고성』에서의 경우, ‘곤륜산’에서는 ‘불무당벌레(火瓢蟲)’와 ‘패왕도룡뇽(霸王蠃螈)’이, ‘야인굴’에서는 ‘붉은 야수(紅狽)’, ‘흡혈박쥐(猪臉大蝙蝠)’, ‘거대늘보(草原大地獺)’, ‘정절고성’에서는 ‘검은 비늘 뱀(黑鱗怪蛇)’와 ‘시향화(尸香魔芋)’ 등의 괴생명체가 등장하여 후바이 일행을 위협한다.⁴⁵⁾ 이들 괴생명체는 성격에 따라 크게 들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패왕도룡뇽, 흡혈박쥐, 거대늘보, 검은 비늘 뱀 등은 현실에 존재하는 동물의 변이태(變異態)이다. 패왕도룡뇽은 빙하시대에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외부와 단절된 환경 속에서

45) 괴생명체의 이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고스트랩프』의 번역을 가져왔지만, ‘尸香魔芋’의 경우 ‘사채화’라는 번역을 쓰지 않고 ‘시향화’로 바꿔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살아남아 있었다. 다만, 원래 냉혈동물이었지만 지열이 높은 지하에서 살다보니 매우 난폭한 성미로 변화였다. 흡혈박쥐 역시 멸종된 줄로 알았지만 지하에서 서식하고 있는 중이었다. 거대늘보는 몽골 초원에서 살다가 지진 등에 의해 지하에 갇힌 채 흡혈박쥐를 먹이 삼아 생존, 번식하였다. 검은 비늘 뱀은 몸체가 검은 비늘로 덮여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 검은 혹이 달린 수십 센티미터 길이의 뱀이다. 물면 사람이 순식간에 죽음에 이르는 극독을 지니고 있으며, 정절국 지하 동굴 등에 때로 서식하면서 침입자를 공격한다. 이들은 모두 공격성이 매우 강하여 후바이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독자들로 하여금 긴장감과 공포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불무당벌레, 붉은 야수, 시향화 등은 순수한 허구의 산물이다. 불무당벌레는 보기에는 반딧불처럼 생겼지만 스치기만 해도 사람을 불타 죽게 만드는 가공의 생명체이다. 붉은 야수는 몽골 초원에 산다고 알려진 온몸이 붉은 털로 뒤덮인 전설 속의 야수이다. 시향화는 관목(棺木) 위에서 자라나는 식물의 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내뿜는 향은 환각 작용을 일으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기도 한다. 이 중 불무당벌레와 시향화는 상상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희생될 수 있다는 데서 위험성이 배가된다. 게다가 앞의 변이 생명체와 달리, 이 괴생명체에 대해서 천하 패창은 존재 연유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도 가하지 않는다. 작가가 이 괴생명체의 존재에 대해 독자에게 굳이 납득시키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귀취등』의 이야기 세계가 인간과 귀신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체와 능력을 알 수 없는 괴생명체가 존재하는 것 역시 이상할 것이 없다. 오히려 이들은 『귀취등』이 설정하는 이도공간의 특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변이 생명체들의 경우는 이들이 서식하는 공간이 수 천 수 만 년의 시간 동안 외부와 단절되었음을,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생명을 유지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들 괴생명체는 이 공간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

는 성격의 ‘이도공간’임을 강조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귀취등』에서 펼치는 후바이 일행의 세 번째 모험 역시 『귀취등』의 ‘이도공간’의 특징을 드러내준다. 『정절고성』에서 후바이 혹은 그 일행은 몇 차례 초현실적인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첫 번째는 내몽고 외딴 마을에 보내던 하방 시기에 겪었다. 어느 날 친구가 실종되자 그녀를 찾아 나섰다가 후바이는 정체 모를 젊은 여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동굴 속 성안으로 따라 들어간 후바이는 등그림자극 공연을 관람하고 연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주인인 노부인의 실체를 목격하고⁴⁶⁾ 귀신을 만났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 그곳을 빠져 나오다 정신을 잃고 만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묘지에 수많은 약사가 함께 순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⁴⁷⁾

몇 년 후, 첫 ‘도두’ 활동을 벌인 ‘야인골’의 지하에서도 후바이는 귀신을 경험하게 된다. 일행인 똥보와 잉쯔(英子)가 각각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가 뛰어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하였고, 후바이는 등판에 감전된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등에 어린 아이의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⁴⁸⁾ 이후에 그들은 지하 묘실에 비치된 관 옆에 남녀 아이의 시신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두 아이는 수은으로 방부 처리된 상태로 순장되어 있었다. 후바이 일행은 희생당한 아이의 혼령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하에서 벗어날 때 아이들의 시신을 데리고 나온다. 세 번째로, 후바이 일행은 ‘정절고성’에서 시향화에 의한 환각에 사로잡히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시

46)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노부인의 머리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땅에 떨어진 노부인의 머리는 계속 극을 보면서 오물오물 음식을 씹고 있었다. 노부인의 하녀가 급히 뛰어나와 떨어진 머리를 조심스레 들어 원래 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때서야 하녀는 귀신을 만났다는 것을 알아챘다.” 천하패창, 『고스트램프1』, 66쪽.

47) “내가 본 것은 도깨비 장난이라 불리는 귀신 마을이었다라고 아저씨가 알려 주었다. 태후가 죽었을 때 수많은 민간 예술인들도 산 채로 순장됐다고 한다.” 천하패창, 『고스트램프1』, 67쪽.

48) “나만 빼고 두 사람 다 지하 요새에서 어린아이를 봤다고 했다. 왜 나만 못 봤을까? 하지만 내 등에 어린아이 손자국이 찍혀 있다는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똥보는 남자 아이를 봤다고 했고, 잉쯔는 격납고에서 여자 아이를 봤다고 했다.” 천하패창, 『고스트램프1』, 226쪽.

향화의 색채에 미혹된 이들이 자기 기억 속의 일들을 잘못 짜맞춰 주변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등의 경험이다. 시향화에 의한 환각 역시 기이한 상황이지만, 『귀취등』과 관련해서는 앞서 거론한 두 가지 상황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귀신 혹은 혼령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다.

앞장에서 언급했다시피, 귀신 혹은 혼령의 존재는 『귀취등』 이야기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이다. 이러한 장르적 특징이 『귀취등』 이야기의 본체에 해당하는 모험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모험 관련 서사에서 귀신과의 만남 혹은 접촉의 일화는 관련 서사의 성격에 따라 취사(取捨)된다. 예를 들어, 할리우드 영화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 『미이라』 시리즈 등에서는 그것이 활용되고, 홍콩 영화 『용형호제』 시리즈 또는 영화 『킹콩』 시리즈 등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략 고대 유적 발굴이나 도굴 등과 관련된 경우 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귀취등』은 이러한 쪽에 속한다. 여기에 더해, 천하패창이 공포소설 혹은 공포 괴담 등에 관심이 많다는 점 또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천하패창은 『귀취등』 창작 이전에 공포소설 3편을 창작한 적이 있으며⁴⁹⁾, 『정절고성』의 제1장과 제2장에 후귀화와 귀신의 일화를 중요하게 다뤘고, 제4장에서는 공포 괴담을 던져 놓기도 하였다. 물론, 이것을 『귀취등』 이야기의 전체적 방향이 확정되지 못했을 때 발생한 일종의 시행착오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절고성』 이외의 다른 『귀취등』에서도 역시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나 괴담이 자주 등장한다.⁵⁰⁾ 이렇게 볼 때, 귀신과 혼령 등 존재의 활용은 『귀취등』에서 나타나는 천하패창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귀취등』을 단순한 모험기가 아닌 ‘모금교위’의

49) 다만, 천하패창은 자신의 공포소설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첫 작품 『홍택맹귀』은 습작에 불과하며 텐진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북한으로까지 전개되다가 결국은 끝맺지도 못하고 끝냈다고 한다. 나머지 『우야담귀사』와 『음삼일하』는 틀을 갖춰 완성되기는 하였지만,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段明珠肖南, 「天下霸唱: 我真是個作家」, 『中國企業家』, 2016年 第13期, 86쪽 참조.

50) 『귀취등2: 용령미굴』의 ‘비단신발(香鞋)’ 에피소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으며, 『귀취등 5: 황피자본』은 기본적으로 중국 등베이 다싱안링(大興安嶺)을 배경으로 한 공포 괴담을 모티브로 삼아 이야기를 진행하였다.

‘도굴 모험기’로서 남다른 특징을 갖게 했다고 할 수 있다.

5. 소문과 전설, 미지 사실의 실체 확인과 그 진상의 파악

『귀취등』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 요소는 후바이 일행이 ‘도두’ 활동을 벌이면서 그간 말로만 전해 내려오는 소문이나 전설 또는 확인되지 않거나 잊힌 사실 등의 실체를 확인하고 나아가 그 진상을 파악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후바이가 ‘도두’ 활동에 종사하기로 결심하고 우심산 흑풍구의 야인골을 첫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곳에 금나라 왕족의 묘굴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는데, 이 판단은 강강촌락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관련 정보와 사연에 풍수술 지식이 더해짐으로써 비롯되었다.⁵¹⁾ 여러 소문과 풍수술에 근거했을 때 그곳에 금나라 때의 묘굴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그 안에 값나가는 보물이 소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도두’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후바이의 ‘도두’ 활동은 각종의 소문과 전설, 또는 자기 예측에 대한 확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절국에 대한 탐사 또한 마찬가지다. 설리양의 아버지는 과거 정절국이 존재하였고 타클라마칸 사막 어딘가에 정절국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탐사에 나섰다. 아버지가 실종되자 설리양은 부친의 믿음에 더해 몇 가지 자료와 그녀의 현몽(現夢)을 근거로 아버지의 종적을 찾고 정절국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탐사대를 꾸렸다. 그녀의 탐사는 정절국과 정절국 여왕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이렇게 후바이가 『정절고성』에서 펼치는 모험은 어떤 확인되지 않은 사실 혹은

51) 강강촌락 사람들은 우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 속에서 가끔 도자기를 건져내곤 했고, 이를 근거로 우심산에 요나라 태후가 묻혔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태후의 무덤 속 보물을 탐내 도굴에 나선 사람들이 종종 있었지만 아무도 살아오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후바이는 우심산의 산수 구조가 할아버지가 남긴 ‘음양 풍수 비술’에서 본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에 그 지역이 여자가 묻히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였다.

전설 등의 실체 확인 작업 차원에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추리 서사 장르는 과거에 벌어진 어떤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그 사건을 일으킨 자를 특정해내는 방식을 취한다. 추리소설에서 시작된 이러한 서사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하게 변용되었고, 또 기타 여러 서사 장르에서 이를 차용하여 활용하였다. 독자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하여 독서를 지속하게 만드는 데 특히 주력하는 대중 통속소설 장르는 이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사건의 실체와 진상 등을 밝히고 파악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작품을 찾기가 오히려 힘들 정도이다. 『귀취등』 역시 예외가 아니다. ‘모금교위’들이 ‘도두’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그간 말로만 전해지던 소문이나 전설의 실체를 확인하고 나아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잊혀거나 숨겨진 사실과 그 진상을 새롭게 파악해내는 내용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야인골’의 지하 무덤을 도굴하기 시작하면서 후바이 일행은 그곳에 금나라 왕족의 무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값나가는 물건 또한 많이 보존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실제 도굴을 통해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사실, 예측하고 기대하면서 확인하고자 했던 바의 실체를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야인골’의 ‘도두’에서 후바이 일행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알게 된다. 이곳이 ‘야인골’이라고 불리게 된 사연, 지하 무덤 옆에 일본 관동군이 ‘만주 몽골 흑풍구 요새 지하 격납고’를 건설해놓았다는 등 미지의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흑풍구의 골짜기를 사람들이 ‘야인골’이라고 부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낙오된 관동군 병사들 때문이었다. 2차 세계 대전 말, 소련군에게 패배, 퇴각하던 관동군 병사들이 원시림에 갇혀 주둔지였던 지하요새로 되돌아가지 못한 채 죽을 때까지 몇 십 년 간 숲속을 떠돌았는데, 이 남루하고 괴상한 차림의 일본 군인을 지역 사람들이 ‘야인’으로 착각하여 이 지역을 ‘야인골’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후바이 등은 지하 묘실에서 붉은 야수에게 쫓기다 무너진 벽 너머에 위치한 거대한 지하 격납고로 피해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은 관동군이 미군의 폭격에 대비해 군사 목적의 창고로 건설한 요새였다.

요새 건설에 동원된 수많은 중국인이 완공 후 기밀 누설 방지를 위해 모두 살해당했고, 소련군과의 전투에 동원된 관동군이 주둔지로 돌아오지 못함으로 인해 지하 요새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채 수 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것이다. 태평양 전쟁 패망 후 일본의 낙오병에 관한 이야기나⁵²⁾ 일본군이나 독일 나치군대의 지하 요새 관련 이야기는 미디어나 영화, 소설 등에서 종종 다뤄졌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 다만, 소문과 전설 등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 등의 진상을 파악해내는 내용이 ‘도굴과 도굴자의 세계’와 관련된 내용, 도굴 과정에서 겪는 ‘이도공간에서의 모험’ 등과 더불어, 모금교위의 도굴 모험기인 『귀취등』 이야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절국’에 관한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다. 후바이 일행은 ‘정절고성’을 찾아가는 도중, 서야고성(西夜古城)에 머물다 옛 우물 속에 감춰진 고목국(姑墨國) 왕자의 묘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 묘실 벽화에는 정절국과 정절국 여왕 관련 기록이 있었다. 이 벽화의 내용과,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서 본 ‘사막 여왕의 전설’ 내용을 근거로 설리 양은 과거 정절국과 정절국 여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추론했다. ‘정절국은 고목국 등을 속국으로 둘 정도로 막강하였고 여왕은 눈빛으로 사람을 사라지게 만드는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왕은 막강한 힘을 믿고 강압 통치를 이어갔다. 고목국 왕자는 여왕에게 자유를 요청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강압과 폭력 통치를 이어가던 중 신의 뜻에 의해 여왕이 갑작스레 병사한다. 여왕의 부재를 틈타 여러 왕국이 반란을 꾀하고 여왕의 능묘를 훼손하려 했지만 무서운 모래 바람이 이들 모두를 집어삼키고 말았다.’ 설리 양은 위의 사실에 대해 벽화 내용과 모종의 ‘전설’을 근거로 한 ‘추론’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하지만⁵³⁾, 작품의

52)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일본군 병사 요코이 쇼이치는 종전 28년 후인 1972년 뎀에서 발견되어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김종성, 「죽은 지 28년 만에 살아 돌아온 남자」, 『오마이뉴스』, 2018년 1월 24일, <https://v.daum.net/v/20180124103301845>를 참조할 수 있다.

53) 이와 관련하여 설리 양은 이렇게 언급한다. “그래도 이건 다 전설이자 우리들의 추측일

맥락상 위의 사실은 새로 확인된 미지의 사실 혹은 새로 파악된 진상에 해당한다.

이어진 탐사를 통해 일행은 자거라마(扎格拉瑪) 산 밑에 위치한 정절고성에 도달, 지하 왕국과 지하 묘실—이곳에 여왕의 관이 안치되어 있었다—에 다다르게 된다. 말하자면, 이로써 탐사대가 목표로 한 확인 작업은 달성된 셈이었다—아버지의 행방을 밝히지 못하였지만 설리 양은 그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일행은 자신들이 알고자 했던 것 이상의 사실, 즉 서역 국가들이 융성하기 약 1,000년 전의 상황에 대해서까지 알게 된다. 지하 묘실 안 돌상자 위의 그림과, 돌상자 안에 보관된 예언서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정절국 등의 서역 국가가 융성하기 1000년 전, 자거라마 산 지역에는 네 부족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지하 동굴이 산 아래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네 부족은 힘을 합하여 그 안을 살피려 하였다. 하지만 그때 안에서 사나운 뱀 떼가 출몰하여 큰 재앙이 닥쳤다. 다행히 두 사람의 성인(聖人)이 뱀 떼를 처치하고 그 동굴을 막았다. 그 후 이들 부족의 후손 중 예지력을 가진 예언자가 나타났고, 미래에 관한 예언서를 남겼다.’ 이 예언서에는 팔 백 년 후 그 지역에 귀동족(鬼洞族)이 나타나 정절국을 세울 것이며 그들의 여왕은 뱀을 불러내는 능력 등을 발휘하여 이웃 나라를 지배하지만, 결국 신의 진노로 멸망할 것이며, 그 지역 또한 사막 깊은 지하에 묻힐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이는 설리 양의 추론과 내용이 같다—. 그런데, 예언은 이에 멈추지 않았다. 그 뒤 수 천 년 후 누군가가 이곳을 방문해서 예언서를 얻게 될 것이며, 그 자가 바로 예언자 자신의 후손이라는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이로써 정절국과 정절국 여왕에 대한 미지의 사실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천 년 전 네 부족 관련 사실, 그리고 정절국 이후 약 이 천 년 뒤의 현재와 관련

뿐이에요. 사실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천하패창의 생각은 곧바로 이어지는 설리 양의 견해, “전설, 기록, 출토된 유물에 학자들의 추측이 더해지면서 내용이 풍부해지고 역사적 사실에 근접해 가는 겁니다”, 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설리 양의 추론은 뒤로 가면서 여러 가지 보충이 더해지면서 ‘사실’로 굳어진다.

된 사실 등 모두가 하나의 맥락으로서 실체가 드러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혹은 허구의 실재’이다. 추리소설이 모종의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공백으로 남아 있던 과거의 일부분을 허구적으로 보충해내는 것과 유사하게, 여기서도 몇 가지 단서와 근거—주로 벽화나 그림, 또는 예언서나 또 다른 전설 등이 그 역할을 한다—을 통해 어떤 실재를 허구적으로 구성해낸 다음, 마치 빈 자리에 딱 맞는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듯,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이를 끼워 넣어 잊힌 과거 사실 전체를 완전하게 구축해내는 것이다. 다만, 추리소설의 경우, 추론의 근거로 삼은 단서와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점검하여 진상을 밝혀내는 데에 공을 많이 들이는 데 반해, 『정절고성』은 그렇지 않다. 단서와 근거의 획득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정보를 해독해 얻는 과정 또한 소략하고 용이하며, 또 밝혀져 드러나는 진상 역시 거칠고 작위적인 편이다. 추리소설의 방식을 차용하고 있지만 추리소설의 짜임새와 완성도를 갖추지는 못한 것이다. 다만, 예언서의 예언을 빌려 후바이 일행 중 한 사람—실은, 설리 양이다—이 예언자의 후손임을 미리 밝힘으로써 그들의 탐사 활동이 필연적 운명임을 시사하고 해당 사실이 향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암시하는 등의 구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후바이 일행이 ‘도두’ 활동을 펼치면서 소문과 전설, 미지의 사실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진상을 파악해내는 내용은 참신하기는 하지만, 그 치밀성과 완성도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귀취등』은 추리소설이나 추리 서사 장르의 자장 안에 있기는 하지만, 추리와 관련된 내용 요소가 압도적으로 부각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6. 나가며

중국의 첫 ‘도굴소설’ 『귀취등』의 이야기 세계는 ‘도굴과 도굴자의 세계’, ‘이도공간에서의 모험’, ‘소문과 전설, 미지 사실의 실체 확인과 그 진상의 파

악' 등 세 주요 내용 요소로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내용 요소가 서로 결합하여 '모금교위 후바이 일행의 도굴 모험기'를 구성해내는 것이다. 이 중 '도굴과 도굴자의 세계'는 『귀취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요소로서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하위 소설 장르의 탄생을 가능케 하였다. 천하패창은 각종의 역사 기록, 도굴 및 풍수 관련 이론 등에서 착안하여 도굴자의 '도두' 활동과 풍수가의 풍수술 등을 결합한 '도굴과 도굴자의 세계'를 상상해냈다. 이것은 다른 작품이나 장르에서는 볼 수 없는 『귀취등』만의 고유한 즐길거리였다. 한편, 천하패창이 『귀취등』에서 제공하는 도굴 및 풍수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면의 구체적 지식과 정보는 이 세계를 한층 풍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 허황한 귀신 이야기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귀취등』의 이야기에 설득력과 타당성을 부여하였다.

'이도공간에서의 모험'은 『귀취등』 이야기가 일종의 모험기라는 점에서 이야기의 본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모험은 '이도공간'으로의 진입, 괴생명체와의 대면, 초현실적이고 기이한 상황의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초현실적이고 기이한 상황의 경험 가운데, 특히 귀신 및 혼령 등과의 만남 혹은 접촉은 『귀취등』의 장르적 특징을 잘 부각시킨다. 즉, 후바이 일행이 귀신 및 혼령 등과 접촉하는 사건은 기존의 모험 혹은 탐험 소설이나 서사에서 잘 볼 수 없는, 죽은 자의 영역 등과 관계 맺을 수밖에 없는 『귀취등』에서나 발생 가능한 '생소한' 사건인 것이다. '이도공간에서의 모험'이 전체적으로 기시감을 느끼게 하는 사건으로 채워져 있음을 감안할 때, 귀신과 혼령 등 존재의 활용은 『귀취등』으로 하여금 '모금교위'의 '도굴 모험기'로서 차별적 특징을 갖게 하였다.

'소문과 전설, 미지 사실의 실체 확인과 그 진상의 파악' 역시 후바이 일행이 도굴 모험 중에 진행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귀취등』 이야기 세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한다. 후바이 일행은 '도두'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그간 말로만 전해 내려오는 소문과 전설의 실체를 확인하고 나아가 그간 잊히거나 숨겨진 사실과 그 진상을 파악하여 과거의 사실 전체를 완전하게 구축해낸다.

이는 추리서사 장르가 증거의 수집과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범인을 특정해내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때, 『귀취등』은 추리 서사 장르의 자장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귀취등』에서 보이는 단서와 증거의 수집 및 해독 과정은 소략하고 드러난 진상은 거칠고 작위적이라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 주요한 내용 요소를 통해서 볼 때, 『귀취등』은 모험과 추리 서사 장르를 이야기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데, ‘모금교위’라는, 풍수술을 갖추고 도굴을 행하는 자가 이야기의 주체로 설정됨으로써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르, 즉 ‘도굴소설’이라는 장르의 이야기로 완성될 수 있었다. 사실, 모험 또는 추리 서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귀취등』의 완성도는 높다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도굴자와 도굴의 세계라는 기존에 볼 수 없는 주체와 활동 영역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귀취등』은 새로움을 획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펼칠 여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로써 귀신과 혼령 등과의 만남과 접촉 등과 같은 『귀취등』 이야기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었다.

參考文獻

- 천하패창 지음, 곰비임비 번역, 『고스트램프 제1권: 비밀지하요새』, 도서출판 엠빈, 2007년 12월.
- 천하패창 지음, 곰비임비 번역, 『고스트램프 제2권: 정절국 여왕』, 도서출판 엠빈, 2007년 12월.
- 웨난 외 지음, 정광훈 옮김, 『황제의 무덤을 훔치다—중국 도굴의 역사』, 돌베개, 2009년.
- 洪丕謨·姜玉珍, 『中國古代風水術』, 上海古籍出版社, 2008년.
- 天下霸唱, 『鬼吹燈1: 精絕古城』, 湖南文藝出版社, 2019년.
- 陳紅旗, 「盜墓想像和解密視域下的“精絕”故事—讀天下霸唱『鬼吹燈之精絕古城』」, 『網絡文學評論』, 2017年 第1期.
- 韓穎琦, 「盜墓小說緣何如此火」, 『文化與傳播』, 2013年 第2卷 第5期.
- 賈寬濤, 「『鬼吹燈』系列小說敘事分析」, 『凱里學院學報』, 2017年 第35卷 第2期.
- 賈寬濤, 「網絡盜墓小說的文體特徵及其價值探究」, 『重慶文理學院學報』, 第236卷 第2期, 2017年 3月.
- 李盛濤, 「網絡小說對中國傳統小說敘事的激活—以『鬼吹燈』為例」, 『淮陰師範學院學報』, 第32卷, 2012年 2月.
- 劉向陽·吳青青, 「“想像力消費”視域下國產網劇的空間生產與文化消費—以“鬼吹燈”系列為例」, 『當代電視』, 2022年 第2期.
- 王楠, 「網絡盜墓小說對古代盜墓敘事的繼承與發展」, 『中國小說論叢』 제55집, 2018년 8월 31일.
- 許靜怡, 「淺析盜墓文學的讀者接受與欣賞—以『鬼吹燈』為例」, 『戲劇之家』, 2016年 第07(下)期.
- 張宇, 「論盜墓題材的影視改編及多元化產業發展」, 『戲劇之家』, 2016年 第03(上)期.
- 默默有聞也, 「爲給女友解悶創作, 作者侵權自己的原著?: 『鬼吹燈』的幕後故事」, <https://news.qq.com/rain/a/20211015A0402W00>
- 無名氏, 「天下霸唱: 我沒盜過墓」, 『網易訪談』, 2006年 12月 15日,

https://www.163.com/news/article/32DBARPK00011229_all.html

無名氏,「天下霸唱,他的原名叫張牧野,他是如何開始進行『鬼吹燈』創作的」,來源:家

驊侃娛樂, https://www.sohu.com/a/465370492_121086912

袁心雨·吳婧,「人點燭,鬼吹燈,版權問題必須爭」——『鬼吹燈』版權的那些事」,

<https://baijiahao.baidu.com/s?id=1765133137509265479&wfr=spider&for=pc>

Abstract

A Study of the Chinese Web Novel ‘Ghost Blows Out the Light(鬼吹燈)’
— Focusing on the Genre Characteristics of the Main Narrative Elements in ‘Ghost Blows
Out the Light: The Lost City of Ancient Western China(鬼吹燈:精絕古城)’

Yu, Kyung Chul

The Chinese Web novel ‘Ghost Blows Out the Light(鬼吹燈)’ can be described as an adventure story about ‘Mojin Xiaowei(摸金校尉)’ Hu Bayi(胡八一) and his companions’s tomb-robbing exploits. Its entire narrative is composed of stories concerning ‘the activities of tomb robbers and their field’, ‘adventures in parallel realms’, and ‘The verification of rumors and legends, and the uncovering of the truth behind unknown facts’. Based on various historical records and theories related to tomb-robbing and Feng Shui(風水) geography, author ‘Tianxia-Bachang(天下霸唱)’ imagined ‘the activities of tomb robbers and their field’ by integrating their ‘daotou(倒斗)’ practices and Feng Shui techniques. This is the most essential element that enabled the birth of a new sub-genre of novels known as ‘tomb-robbing fiction’. ‘Adventures in parallel realms’ constitute the core narrative of ‘Ghost Blows Out the Light’, given that the work is essentially a kind of adventure story. These adventures consist of entering parallel realms, encountering bizarre lifeforms, and experiencing surreal and uncanny situations. In particular, meetings with or contact involving ghosts and spirits reveal a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Ghost Blows Out the Light’, setting it apart from other adventure stories. ‘The verification of rumors and legends, and the uncovering of the truth behind unknown facts’ is a crucial activity carried out by Hu Bayi and his companions during their tomb-raiding adventures, indicating that the narrative of ‘Ghost Blows Out the Light’ falls within the realm of detective or mystery fiction. However,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deciphering clues and evidence in ‘Ghost Blows Out the Light’ is often underdeveloped, and the revealed truths tend to be crude and contrived, exposing certain narrative limitations.

Key words : The Chinese Web novel(中國網絡小說), Ghost Blows Out the Light(鬼吹燈), Tianxia-Bachang(天下霸唱), tomb-robbing fiction(盜墓小說), 'Mojin Xiaowei(摸金校尉)', Feng Shui(風水),

투 고 일 : 2026. 4. 10. / 심 사 일 : 2026. 4. 15. ~ 2026. 5. 15. / 게재확정일 : 2026. 5. 20.